

피해사례를 활용한 행정구역 홍수량 기준 설정 방안 연구

최천규*, 김경택*, 최윤석*, 김주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e-mail:cheonkyuchoi@kict.re.kr

The Study on Criteria of Flood Discharge using Flood Damage Case

Cheon-kyu Choi*, Kyung-Tak Kim*, Yun-Seok Choi*
*Dept. of Land, Water and Environment Research, KICT

요 약

자연재난 중 하나인 홍수는 피해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홍수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인자는 크게 강우량과 홍수량으로 구분된다. 홍수피해는 행정구역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행정구역 중 하천이 적은 지역은 강우량에 의한 홍수가 주로 발생하며, 하천이 많은 지역은 홍수량에 의한 피해가 주로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홍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전국적으로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홍수에 의한 영향 및 지역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별 홍수량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각 행정구역별 홍수피해 사례와 무피해 사상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낙동강권역의 홍수피해 발생 비율을 활용한 홍수량 기준을 설정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피해 사례 조사 및 홍수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통해 홍수량 기준 설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